

수요일예배 대표기도문 8월 넷째주

수요일예배 대표기도문 8월 넷째주

수요일예배 대표기도문 8월 넷째주는 여름의 끝자락과 새 학기 시작을 앞둔 시기의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름의 은혜에 감사하며, 동시에 다가오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준비하는 소중한 때입니다. 여름휴가와 휴식의 시간을 통해 재충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앞으로 다가올 새 학기와 하반기 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수요일예배 대표기도문 8월 넷째주 1 - 여름 은혜 감사기도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하나이다” (시편 36:5)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여름 동안 저희에게 베풀어주신 크고 작은 은혜들을 생각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서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허락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여름 동안 많은 성도들이 휴가를 통해 몸과 마음을 쉬게 해주셨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바다와 산, 계곡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깨달으며 신앙을 더욱 견고히 할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여름성경학교와 각종 수련회를 통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많이 나아져서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떠날 수 있게 해주시고, 오랜만에 친지들과 만나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일상이 회복되어 가고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계절에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여름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일예배 대표기도문 8월 넷째주 2 - 새학기 준비기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18)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 여름이 지나가고 새 학기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학생들과 교사들, 그리고 모든 교육 관계자들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함께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학생들이 새 학기를 맞아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특히 대학에 새로 입학하거나 새로운

학교로 전학하는 학생들에게는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좋은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십시오.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교육 환경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지혜롭게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게 하시고, 학부모들도 자녀들의 교육에 올바른 관심과 사랑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세상의 지식을 배우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신앙의 뿌리를 더욱 깊이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일학교와 청소년부 사역이 더욱 활발해져서 아이들이 교회에서 신앙의 친구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십시오. 새 학기를 맞아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배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수요예배 대표기도문 8월 넷째주 3 - 교회 부흥 기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태복음 28:19)

사랑의 하나님, 여름 기간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휴식을 취했던 성도들이 이제 다시 교회 공동체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통해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가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지난 여름 동안 각종 수련회와 여름성경학교를 통해 뿌려진 말씀의 씨앗들이 성도들의 마음에 깊이 뿌리내려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특히 처음 교회에 발걸음한 새 가족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고, 믿음의 가족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십시오.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예배 환경 속에서도 성도들이 예배에 대한 갈망을 잃지 않고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시십시오.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조화롭게 운영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자들과 봉사자들에게 새로운 힘과 비전을 주십시오. 담임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역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십시오. 또한 각 부서의 헌신적인 봉사자들이 지치지 않고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건강과 열정을 주십시오. 하반기를 맞아 우리 교회가 지역 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사랑의 실천이 더욱 활발해지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예배 대표기도문 8월 넷째주 4 - 가정과 직장 축복기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1-2)

은혜로우신 하나님, 여름휴가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온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에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임하시길 간구합니다. 휴식을 통해 재충전된 마음으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시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여름 동안 함께 보낸 시간들이 가족 간의 사랑과 이해를 더욱 깊게 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부부간에는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커지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믿음 안에서 소통하고 격려하는 관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특히 새 학기를 맞은 자녀들을 둔 부모들에게는 자녀교육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와 부담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자녀들도 부모의 사랑과 기대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직장에서는 각자가 맡은 일에 충실하며 동료들과 상사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일터의 선교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업무 환경 속에서도 지혜롭게 적응하고, 재택근무와 출근을 병행하는 상황에서도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에게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넘치게 하시고, 건강상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가족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새로운 한 주간이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일예배 대표기도문 8월 넷째주 5 - 선교와 전도 기도

“그런즉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로마서 10:14)

선교하시는 하나님,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기억하며 이 시대의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름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며 새로운 각오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먼저 해외 선교지에서 수고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선교 단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제약이 있었지만, 이제 점차 선교의 문이 다시 열리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각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현지인들과의 관계에서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특히 북한과 중국, 중동 지역 등 복음 전파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보호해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 이후 더욱 어려워진 경제상황 속에서도 선교 사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과 인적 자원을 공급해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안에서도 복음화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며, 국내 선교의 중요성을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특히 MZ세대를 비롯한 젊은 세대들이 복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새로운 전도 방법과 접근법을 주시옵소서.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디지털 선교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평신도 선교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들을 교회로 초대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새 학기를 맞아 학교 안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활발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 동아리 활동이나 성경 공부 모임을 통해 학생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게 하시고, 믿지 않는 친구들도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선교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8월 넷째주 수요일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하시고, 새로운 계절을 맞아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더 많은 기도문 보러가기:
(대표 기도문 나눔터) <https://prayer-church.co.kr/>